

어린이 책꽂이



▲내 몸이 궁금해=“날씨가 추우면 왜 소름이 돋나요?” “배가 고프면 왜 꼬르륵 소리가 날까요?” 어린이라면 한번쯤 궁금해 할 몸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한 책이다. 마치 그림책을 보는 듯 익숙하고 정겨운 그림을 통해 뇌, 심장, 뼈, 간, 피부 등 우리 몸에 대해 알아야 할 지식들을 재미있게 알려준다. <현암사·1만1천원>



▲행동하는 사람이 꿈 이뤄요=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펴낸 동화책. 시골에서 태어난 소년이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앞을 내다 보는 밝은 눈과 소름끼칠 정도로 무서운 추진력을 갖춘 이 회장의 리더십을 보여준다. <세종꿈나무·9천500원>



▲보리와 누리의 나들이=즐거워 가족 나들이를 통해 공판장소에서 예절을 일깨워준다. 병원, 음식점, 미술관, 마트, 미술관, 도서관 등 어린이들과 자주 가게 되는 장소에서 필요한 예절이 무엇인지 보리와 누리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뜨인돌 어린이·9천500원>



▲알몸으로 학교 간날=깜짝 웃을 뭉뚱이 알몸으로 등교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발가벗은 채 빨간 장화만 신고 학교에 온 피에르의 에피소드를 통해 차이와 배려에 대한 프랑스 문화를 보여준다. 차이를 차별로 가지 않게 배려해가는 모습과 주인공이 겪는 아픔을 자연스럽게 그려냈다. <아름다운 사람들·9천500원>



▲눈 미끄럼 타는 할아버지=눈 미끄럼을 타면서 용기를 되찾게 된 할아버지를 통해 희망을 전한다.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할아버지는 우연히 눈 미끄럼을 타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다. 언제부턴가 내일을 꿈꾸는 대신 현실에 안주해 버리려했던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이다. <시공주니어·9천500원>



▲나 어린 적에=소설가 박완서씨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쓴 동화집이다. 시골집 뒤란에서의 신바람 나는 놀이, 흔들리는 등잔불 앞에서 들던 엄마의 옛날 이야기, 엄마 손에 이끌려 온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 등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풍경이 펼쳐진다. <처음주니어·9천800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주인공 사랑이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삼촌으로 부터 엄마 아빠의 친딸이 아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진짜 엄마 아빠를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한 사랑이는 자기를 주워왔다는 다리로 향한다. 과연 사랑이는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될까? <어린이 작가정신·8천500원>

▲쓰나미=1854년 일본의 히로 라는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이다. 지진해일이 발생해 4미터가 엄청난 파도가 마을을 덮쳤지만 하마구치 고료우는 지혜를 발휘, 거대한 독을 완성해 수백명의 목숨을 구했다. 지진해일은 대처만 잘하면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사계절·1만500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내면적 탐구

한낮의 시선

이승우 지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는 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작품을 주로 써온 장흥 출신 작가 이승우(50·사진)씨가 새 장편 소설 ‘한낮의 시선’을 펴냈다. 계간 ‘자음과 모음’에 1년 동안 연재했던 것을 엮은 것.

작가의 인간에게 숙명적으로 지워진 역할과 결핍 등 관념적인 주제에 대한 성찰은 이번 작품에서도 이어진다. 이번에는 인문학의 오랜 주제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다.

소설은 버림받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통해 억압과 집착, 두려움을 떨치고 내면적 성숙을 이뤄가는 세밀한 과정을 그려냈다.

29살 주인공 한평재는 폐결핵 진단을 받고 어머니가 마련해준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에서 요양 차 머무른다. 그곳 숲길을 산책하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이

지만 누군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두려움과 불면증을 느낀다.

늘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아버지가 등장하는 꿈까지 꾸고 난 후, 이곳에 사는 은퇴한 심리학 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한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아버지를 찾아 한 도시로 떠난다. 휴전선 근처 인구 3만의 작은 도시,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의 아버지가 농장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부유한 여인과 재혼한 뒤 지역의 유지가 왜 지역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다. 아버지는 자신을 찾아온 아들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한다.

꿈이아 아들은 아들의 존재가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아버지의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납치되고, 자신은 아버지와 상관없다는 기자회견까지 강요당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갈하는 신세가 된다.

간헐 한평재는 객혈을 하게 되고 그를 감시하며 보살펴주는 김 중사아 개우기 전까지 동우 속에서 벌거숭이 채로 숲을 걸어가느 석양빛을 받은 한 남자를 본다. 키 큰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빛 속에서 정신과 영혼이 말갈개 정화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은 어머니에 의해 구해지고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주인공을 찾아온

여자친구 P는 돌아오는 길에 주인공을 위해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준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소설 속에는 다양한 문학작품과 설화들이 등장해 스토리 전개를 돕고 있다. 소설 속에 삽입된 나바호족 쌍둥이 전사의 이야기는 ‘찾는 자’인 아들과 ‘뿌리치는 자’인 아버지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소설은 공허한 결말과 함께 아들과 아버지, 인간의 운명을 다루는 것 같지만 결국 갈등하는 인간과 이를 지도하는 ‘아버지’(절대자 또는 신)와 이어지는 듯하다. 소설은 이처럼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신에게서 도망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알레고리처럼 읽힌다. 조선훈과 교수를 재직하고 있는 이 씨는 현재 연구년을 맞아 8월부터 영국 런던(런던대)에 머물고 있다.

이 씨는 작가의 말을 통해 “언제나 그렇듯 조금 뿌듯하고 많이 아쉽다. 그렇지만 모퉁이를 돌면 부딪칠 것 같은 알 수 없는 존재, 부딪치기를 바라지 바라지 않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초월이며 내재인, 미지의 큰 시선과 웅변만 친해진 것 같긴 하다.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름·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승우

지방정부 살림살이 평가 보고서

... 지방재정평가단

프레시안·희망제작소 공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들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규모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246개에 달하는 지방정부들이 살림살이를 얼마나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잘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가 민간에 공개된 것도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이다.

자료의 양으로 보거나 통계의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사업을 맡아야 마땅하지만, 손 놓고 있는 정부 대신 민간단체가 나서서 이런 작업을 수행했다. 인터넷 언론사인 프레시안(pressian.com· 대표 박인규)과 시민운동단체인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가 공동으로 구성된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단’(단장 조일출)이 그 단체다.

이 단체가 12월 14일, 지난 2007년과 2008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전국 246개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운용 실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살림살이 분석을 위한 33개 지표(광역단체에 대해서는 35개 지표)가 적용됐다. <이른아침·10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시대 양반들의 실상 조명

조선 양반의 일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음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엮은 ‘조선 양반의 일생’은 고문서를 다양하게 해석한 글과 많은 도판 자료를 통해 양반의 실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양반은 관직에 나아가면 녹봉을 받지만, 국가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규정보다 적은 녹봉을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방관을 비롯한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가계를 유지했다.

양반이란 맑은 유래 문관과 무관을 총칭하는 것으로 현직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점차 신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중국에서는 주로 범죄자인 천민을 제외한 모든 남자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상인의 아들이 문과에 급제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실질적으로 양반에게만 응시 자격을 줬다.

과거를 보기 위해 6차례 개명한 사례도 있다. 조선시대 영조·정조 시절 경성도 진주에 하명상(1702-1774)은 세론(19세)→대륜(22세)→증(34세)→인준(43세)→정황(46세)으로 5차례나 개명했다. 하지만 나이 50이 되도록 낙방을 거듭하다 다시 이름을 명성으로 바꿨다.

이 밖에 양반의 유년 교육, 주거 문화, 관례와 혼례, 가족제도 와 가계계승, 상·제례와 조상숭배, 지방 사족 사회와 자치조직 등에 관련된 글 12편이 실렸다. <글향아리·2만2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저출산 문제는 자본주의가 주범

팅 빈 요람

뉴아메리카재단 연구원 지음



저출산으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을 주는 일선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저출산이 이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인구문제 전문가 필립 톰 뉴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의 저서 ‘텅 빈 요람’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자본주의의 심화가 낳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국가들이 출산율 저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인 중국도 급세기 중반까지 세대별로 인구가 20~30%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쿠바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다.

농경 사회에서는 자녀가 재산이자 노동력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기우는 비용만 늘어난다.

아이러니한 것은 저출산 문제를 낳은 자본주의는 인구가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지탱되기 어려운 체계라는 점이다. 노동력이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

또 조세 기반이 위축되면 의료비와 연금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다음 세대에 투자 가능한 자원이 소진된다. 결국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민음인·1만4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9급 공무원 강좌. 2010년 시험 참여를 위한 최선의 선택! 2010년 공무원 정원 4,800명 증원, 2011년까지 세무직 1472명 증원, 2013년까지 소방직 8000명 증원 예정. "이제 대세(大勢)는 '무등고시학원'입니다" [정규종합반, 야간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일반행정직/세무직, 경찰행정직, 소방직, 관세직, 9급교육행정직, 2010대외공개설명회: 12월 9일 / 12월 26일 15:00 본원 201 강당. 10급 기능직 특채 및 일반직 전환 대비. *2010년 전직, 승진시험 및 10급 기능직 특채 대비* 박찬걸, 임강석 교수팀, 연중상설 강의 개설. *각 과목별 8주완성, 야간반, 주말반 동시 개강. 개강 및 공개 설명회 1월 9일(토) 14:00.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위치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2-4560

광문공인중개사 ☎ 062-365-1920. 모텔 임대 매매 전문, 교환. 신축 무인텔 급임대, 무인텔 월매출 5천이상, 4억5천에 월 1,500만원, 신축모텔 부지다량 확보! 일반모텔 월매출 5천이상, 급 매매가 15억원, 은행대출 8억, 실투자금 7억 OK. 전국 모텔 임대 매매 전문, 손님이 와글와글하고 일짜배기 모텔! 순천 모텔 임대, 보증금 3억 월 900만원, 목포 해안도로쪽 모텔, 급 매매 다량 확보! 모텔임대사업, 3~4억 투자하시면 매월 1,000만원 이상 소득 확보! 등기율 100%. 010-7637-7743, 010-4703-6223, 011-623-8972

동북아 경제 중심지.. 서해안, 새만금을 주목하라! (세민금~변산~고사포~경포~상록~모항 해수욕장까지의 투자 벨트 형성). ○검증된 추천 물건○. 상록해수욕장이 보이는 펜션부지, 300평(전) - 평당 80만원, 150평(전) - 평당 80만원, 470평(당) - 평당 150만원(상기 및 펜션,분할가능), 격포 바닷가, 펜션, 모텔부지, 500평 - 평당 180만원(대,전,모텔,1동 포함), 전원주택 및 투자부지, 1000평 - 평당 25만원(당), 500평 - 평당 60만원(부인텔,주책1동 포함), 1200평(전)-평당 35만원 (2~300평 분할가능) - 투자물건 다량 확보(소액부터 다액까지).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 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2010년초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 적기. *오랜 실무경험으로 매입에서 매도까지 책임중개. 상가/모텔 투자 물건(지상 5층), 완도읍, 중심 상권내 대지 80, 건평 320평 매매가 10억, 보증금 4,000만원 월 매출 1,230만 이상. 서해안·새만금 지역 전문 중개업소 보 임 공 인 중 개 사. 상담번호 : 062-527-8844/010-8004-5900/016-609-5888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상가건물(롯데백화점 인근, 현 성림중), 대 453㎡ / 건 2011㎡(사무나+원룸21실+주책), - 수익률 15%이상 매매가 20억(실정 10억, 조정가). ▶상가건물(완도읍 여객선터미널 옆) 대 280㎡ / 건 989㎡(상가+모텔19실+주책), 수익률 아주 좋을 매매가 10억(조정가). 토지(광주호상류-가든식당, 과수원, 임야), -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분할가). ▶농지(무안군 운남면) 23.600㎡(바닷가,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3.3㎡당 20만원. 대지(신촌동) 764㎡(버스승강장, 전철역 5분거리), - 매매가 ㎡당 36만원(원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고시텔(전대후론 체육공원 인근) 대 282㎡ 건 580㎡ (최근준공) 톨52(톨방 월임대료 23만원) 매매가 8억5천. 대지(북구 신안동)402㎡(물류창고적합), - 매매가 3.3㎡당 150만원. ▶농지(전.담양군 금성면) 883㎡ (관리지역), 매매가 3200만원(조정가). 농지(충효동-광주호상류)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당 925천(가격조정가). ▶가든식당(월출산국립공원 입구) 7,865㎡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당, 대출상당, 각종부동산투자상당. 부동산투자클럽 공인 중개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